

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작은 고침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든다, 카이젠(Kaizen)

원문 주소

<https://www.gklibrarykor.com/10698/>

PDF 미리보기 · 이 글의 일부 내용입니다.

공장 작업대 위의 공구 자리를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옮기면 한 번에 몇 초쯤 아낄 수 있습니다. 그 정도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지만, 같은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 되풀이하는 현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이런 작은 고침이 수많은 사람의 손에서 매일 쌓이면 회사 전체의 품질과 속도가 눈에 띄게 바뀝니다. 이 생각을 경영의 방식으로 다듬은 것이 바로 ‘카이젠(Kaizen)’입니다. 카이젠이란 쉽게 말해 ‘거창한 한 번의 변화 대신 현장의 모든 사람이 작은 개선을 끊임없이 쌓아 조직 전체를 나아지게 하는 경영 방식’을 의미합니다. 일본어 改善(개선)을 그대로 읽은 말로, 도요타 자동차의 생산 방식과 함께 세계에 알려졌습니다. 본 자료에서는 카이젠이라는 말의 뜻과 출발점부터, 현장에서 없애려는 세 가지 낭비, 카이젠을 굴리는 대표적인 도구, 그리고 이 방식이 남긴 교훈과 한계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작은 고침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든다, 카이젠의 원리와 쓰임 카이젠이란 무엇인가 카이젠은 일본어로 그저 ‘더 좋게 고침’을 뜻하는 평범한 낱말입니다. (1) 일본어로는 평범한 말이다일본에서 카이젠은 크든 작든, 한 번이든 여러 번이든 모든 개선을 가리킵니